

“광주,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세”

2017년 3건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38건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지자체 역할 강조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38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건, 2019년 18건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서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9년

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에서도 공유 킥보드 업체 4곳이 전동킥보드 2060대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사고와 민원이 함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과 일본이 전동킥보드의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입법례를 예로 들며 국내 규제 방안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재개정됐지만, 시행



시점이 오는 4월이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고 의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 지침을 마련하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경기자

빛 독촉에 편의점 강도짓 20대 징역형

빛 독촉에 시달리다 대낮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20대 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 동구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한 뒤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42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6분께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협박, 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내용·횡수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A씨는 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보증회사로부터 채무 부제를 독촉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치고 도주 40대 징역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모 편의점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정차하지 않고 급출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교통경찰관 1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A씨의 범의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경과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씨가 범행 이후 자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30대 입건

24일 오전 5시 14분께 부산 남구 황령터널 입구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철재 기둥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담양소방서장, 신축 공사장 관서장 긴급현장점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막바지 겨울철 추위가 지속되면서 매서운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날이 추워질수록 난방용품 사용량도, 화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가 공사장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이에 따라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지난 18일 공사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습관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찾아가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으로 현장 지도 강화 계획에 따라 공사장과 같은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방문점검은 공사장 화재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스프링클러 면담 및 화재 예방 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버넌스 부활 목표’...나주SRF 새 범시민단체 추진

SRF 갈등 해결 위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

새 단체 구성되면 ‘제2거버넌스 구성’ 문제 해결에 총력



민관 거버넌스 해체 이후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 ‘새로운 범시민단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SRF갈등 해결을 위해 공문화를 이끌어온 ‘제1기 거버넌스’는 범시민대책위가 제기한 합의문 조정에 실패해 해체됐다.

24일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남 지역 11개 시민·사회·연합단체 대표 22명이 회의를 하고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

운 범시민단체 결성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7~8월께 예정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수리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SRF 저지 투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주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각 단체들은 새로운 시민단체 구성을 위해 매월 연석회의를 갖고 각 단계별 참여 여부와 새로운 투쟁단체의 활동 방향, 기여 방안 등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을 준비한 나주시의회 김철

민 시의원은 “이르면 3월께 새로운 범시민 투쟁단체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 7개 읍·면·동 대책위원회 이만섭 회장은 “그간 활동이 부진했던 7개 읍·면·동 대책위를 새로이 재건해 SRF 문제가 빚어낸 혁신도시 뿐 아니라 나주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도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장 장재영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가 구성되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외에 환경부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제2의 거버넌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1기 거버넌스는 범시민대책위를 포함해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당사자만 참여했다.

하지만 2기 거버넌스에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첫 사업 주무부처였던 환경부와 대량의 생활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반출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광주시까지 참여 시킬 계획이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기동취재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준설없는 입암천 유수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4일 “목포시가 남해빛물펌프장 앞 입암천 유수지의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가 지난 20여 년간 유수지의 저수량을 늘리는 준설은 하지 않고 유수지 기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목포시의 입암천 유수지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로, 용당동과 연동 등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빛물펌프장 펌프시설이 잘 가동돼도 바닷물이 만조인 상태에서 배수가 불가능해 준설 없는 유수지 공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빗물과 함께 들어오는 생활하수는 차단하고, 수생식물도 관리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